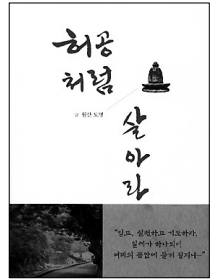


“허공은 텅 비어 모든 것 담을 수 있어”

허공처럼 살아가

글 원산 도명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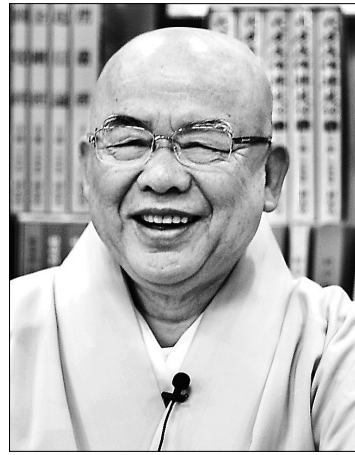


“허공”이란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공 속에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다른 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에 의해 막히지 않아도 된다. 헤아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 불법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허공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불자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화두’이다.

간 곳곳서 부처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라는 ‘제 4장 행복하러가든 하나가 되라’이다. 즉, 발심해 생사를 넘은 공을 깨닫고, 부처님의 진리로 다 같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 가라는 것이다. 스님의 설법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불제자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반야의 지혜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마음의 창고인 아뢰야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동안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런 말이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아뢰야식창고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귀로 들은 것이 다 그렇게 창고 속에 저장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같습니다. 입으로 맛본 것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 듣고 촉고 서늘하고 느끼는 촉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뢰야식 창고에는 오랫동안의 오온 집착물이 쌓여 있지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보니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요소가 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한 이치를 알고 보니 일체 괴로움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이 성취되고 나면 공한 이치를 다 알게 됩니다.”라고

이러 스님은 <반야심경>의 공사상에 대한 얘기도 덧붙인다. “누구라도 지나는 삶은 모두 한 나절의 꿈과 같습니다. 이 몸뚱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몸이란 가짜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정신이 끊어지면 육신이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근본사상입니다.”며 생과 사를



원산 스님 설법 엮은 법문집

총 4개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

욕심없이 받아들이는 허공지혜 강조

뛰어넘은 공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한, 마지막 ‘제4장 행복하러가든 하나가 되라’ 중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분별이 있다면 이 법문을 설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높고 낮음도 둘이 아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품자리, 법성의 자리에서는 남녀가 하나입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딸이 태어나지 못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불이(不二)의 둘이 아니다’라는 도리 역시 하나 속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며 법성의

로 하나 된 마음을 당부했다.

즉,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된 생각과 마음, 아집, 어리석음을 끊어버려 걸림 없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타인과 나도, 저 멀리 있는 산과 끝없이 펼쳐진 하늘도 ‘하나’임을 원산 스님은 불제자들에게 일러준다.

원산 스님의 법문집 <허공처럼 살아가>는 이처럼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감으로써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히고 망상과 모든 뜻을 여의어 다함없고 걸림 없는 깨우침의 참된 소식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불제자들에게 전한다.

원산 도명 스님은 “열아홉 나이에 수행자가 되기 위해 통도사를 찾은 소년인 반백년이 훌쩍 지나 숲보다 검던 눈썹은 백미가 됐지만 초심만은 잃지 않았다.”며 “허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무소유하면서 전에는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허공처럼 비울 때 모든 어려움과 고뇌가 다 없어진다”고 덧붙인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원산 도명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으로 19세에 입산해 경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금강계단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법어사, 동화사 전문 강연회 강연을 수학했으며, 극락암, 송광사, 봉암사, 칠불사 등 선원서 수선인가를 마쳤다. 통도사 재무 및 총무국장, 조계종 제 6,8대 총회 의원, 직지사과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와 통도사 주지를 역임했다.

중국서 불교사상은 어떻게 변화 됐을까?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 5천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 전래 초기부터 이른바 ‘중국화’의 여정을 밟았다. 그것은 불교의 전래에는 필연적으로 그 교의(敎義)를 담고 있는 경전에 대한 역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문화적, 사상적, 언어적, 상징적 체제가 다른 중국에 적합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번역어의 부재는 유사한 용어와 개념을 차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함의가 불교의 그것들과 ‘차종(錯綜)’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문화가 창출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당시 중국 사회에 이미 체계를 갖추던 유가 및 도가와 거대한 ‘문화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을 ‘통섭(通攝)’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통섭은 에드워드 월슨(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인 <Consilience>가 번역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지만, 본래 ‘통섭’은 불교용어로서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다양성을 총괄하여 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자는 중국에서 불교사상이 변화, 전개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유가 및 도가 등 양가의 만남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용하였기 때문에 ‘통섭’이라는 개념이 매우 적합한 분석틀이라고 본다.

이 책은 중국불교 ‘사상사’이다. 그리고 중국불교의 사상사는 결코 불교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즉 중국불교 사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유불도 삼교관계의 과정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내재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사상적 핵심을 지니고 있는 유불도 삼교의 ‘통섭’을 통하여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사상사를 통관(通觀)하고 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유학의 사상적 틀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인성론, 심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중국불교의 독특한 ‘불성론’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불성론을 바탕으로 ‘돈오(頓悟)’라는 동아시아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 발전된 ‘불성론’은 이후

역으로 유학에 영향을 주어서 송명 대에 ‘이학(理學)과 ‘심학(心學)을 출현하도록 하였다.

도가와 불교의 관계 역시 매우 깊은데, 초기에 중국인들에게 불교가 도가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용어들이 도가의 용어로 차용되었고, 또한 사유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노장으로 ‘반야’를 해석하는 ‘격의불교’가 출현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당대의 성현영은 삼론종의 반야학을 흡수하여 ‘중현학(重玄學)’을 창시하여 본격적인 도교를 개창했으며, 그의 중현학은 다시 선종(禪宗)이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광대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유불도의 통섭은 전체적인 중국사상을 이해하는 데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측면이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사상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 어느 학문을 연구하더라도 이 삼교 사이의 교류를 통찰하지 못하면 이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통섭’ 개념 사용하여 고찰

중국 불교의 사상적 변용 조망

이 책을 통해 유불도 삼교 사이의 충돌과 갈등, 교류와 융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중국에서 불교가 어떻게 사상적 변용을 거쳐 새로운 사상문화로 만들어 가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불교는 이른바 궁극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불조 석존이 제시한 교의에서 진리성을 찾는 연구는 가장 본질적이고, 긴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런 석존의 가르침이 또다른 지역과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그 지역적 문화와 융합해 어떤 변용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도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는 “유가와 도가 양가의 통섭 과정을 통한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상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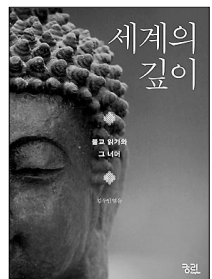
▲저자 김진무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의 선사사연구>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佛學與玄學關係研究(中文)>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절강성 항주의 절강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중한 불교교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불교의 거사들>, <공자(나, 버림 것인가)를 찾아서>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 등이 있고,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명, 불교와 유학) <선학과 한학> (선과 노장) (단경도해) 등이 있다.

인문학자가 바라본 붓다, 그리고 불교

세계의 깊이

김우인 지음 | 공리 펴냄 | 1만 3천원



‘세계(世界)’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이다. 산스크리트어 ‘로카다투’를 한문으로 번역한 ‘세계’는 해와 달이 비추는 범위로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네 개의 대륙을 가리킨다. 여기에 천상과 지옥도 포함하여 대체로 우주의 의미로 쓰였다. 후에 쓴 ‘시간’을,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했다. 종교학, 철학, 신학 등을 공부한 인문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물질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더욱 목말라하는 이들을 위해, 불교가

인간과 세계의 깊디깊은 내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전하고자 했다.

열반한 고타마 싯다르타는 과연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려 했을까? 붓다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붓다가 진정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대한 종교 조직이 생겨나고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려 애쓴다. 재가신도라 불리는 많은 이들은 붓다에게 접하며 복을 본다.

이 책의 제목처럼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세계의 깊이’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작은 울타리를 깨고 환골탈태하여 인류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원천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길로 가려면 우선 붓다의 사상과 함께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경전에 압도되어 그 작

업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불교 문헌 중 붓다의 생애와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에 관련된 글들을 선별해 모았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로서의 고집멸도(苦集滅道)는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합

“불교 알려면 철저히 경전 읽어야”

초기 경전부터 현대 문헌까지 망라

리적이며 실천적인 길로서 불교의 총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알기 위해 시간적으로는 초기불교 경전부터 현대까지, 공간적으로는 인도,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헌과 불시(佛詩) 등을 망라했다.

이 문헌의 문장들을 읽으려면 먼저 불교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짧지만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전반을 1장 ‘지금 불교를 다시 생각하며’에서 서술했다. 구체적으로 붓다의 생애와 사성제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불교사 전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관점을 제시했으며, 나아가 현재적 맥락에서 불교를 어떻게 읽어내고, 어떤 씨앗을 받아서 키워갈지 있을지 모색해보았다.

이렇게 불교 전반의 이해와 함께 주요 불교 문헌들의 문장을 직접 맛보는 일을 하나의 책 안에서 실현해보고자 한 것이 이 책을 엮어 펴낸 의도이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불교에 관한 개괄적 이해에서는 어려운 불교의 교의와 역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대화체를 사용했다. 단, 쉽게 서술하되 불교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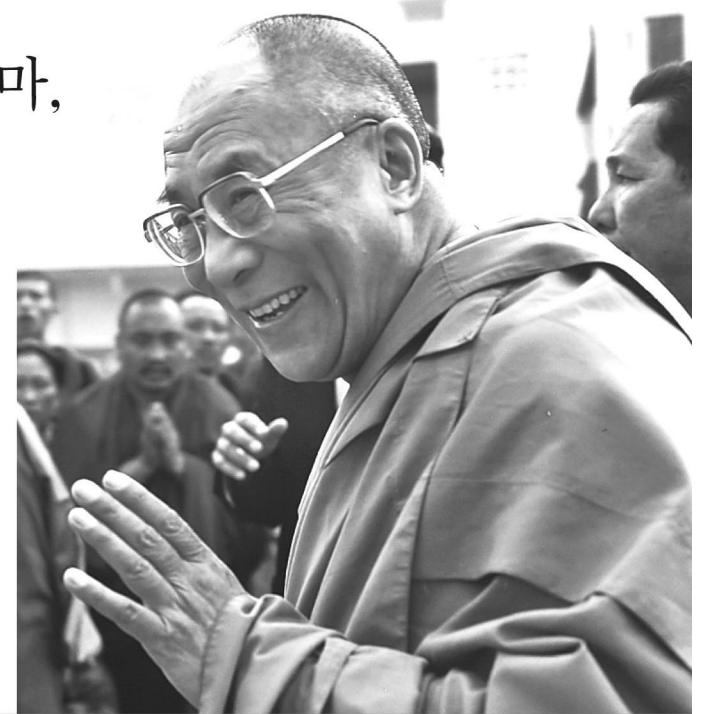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